

스탬프식 기물의 생산 개시

특히 만주사변 이후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위문품으로서의 쇼기 기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덴도에서는 필기 기물이 풀 생산되었고, 메이지 말기에 발안된 군인 기물(행군장기)의 제조도 포함하여 이에 대처했습니다. 한편 오사카 상인도 스탬프 기물을 고안하여 생산했지만 수요에 응할 수 없어 덴도에 제조를 의뢰했습니다. 덴도에서는 싼 가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오사카의 스탬프 기물은 경쟁할 수 없게 되어 그 제조는 덴도가 독점하게 되었고 덴도 기물의 이름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전후부터 쇼와 30년대에는 업계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양적으로는 스탬프 기물·필기 기물(해서체)이 주였지만 점차 조각 기물의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용 재료도 종래의 '호오', '하비로', '이타야', '마키' 등 외에 '아오카'나 '삼회양목' 등의 새 재료도 사용되어 글자 형태·목지·마무리의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단계의 가격 제품을 갖추어 수요의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쇼와 49년의 제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대중의 니즈가 고품질 지향이 된 것이나 조각 기물의 보급으로 구매 사이클이 늘어난 것 등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 또한 덴도는 대중 기물의 생산지라는 이미지가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스탬프 기물·필기 기물 등은 급속히 쇠퇴해 갔습니다. 그에 따라 목지 장인의 기계 설비 가동률도 떨어져 폐기되는 것도 나왔습니다. 덴도 전통의 초서체 필기 기물은 한때 전혀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최근 초서의 맛이 재평가되어 현재는 소량이나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 기물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중 90%는 기계로 새겨지고 있으며, 조각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졌습니다.